

# 충북 지방 유교 문화지역의 형성과정과 영역성\*

－ 書院 건립의 擴散 과정과 分布 패턴을 중심으로 －

전 종 한\*\*

I. 머리말	III. 서원의 分布  패턴과 그 特徵
1. 연구 목적	1. 時期別  변화와 特徵
2. 象徵景觀으로서의 書院	2. 隣接 地域圈과의 比較
II. 충북 지방 서원의 朋黨的 性向과 建立 推移	IV. 맺음말

## I. 머리말

### 1. 연구 목적

1542년(중종 37년)에 건립된 백운동서원을 시초로 하여 16세기 이후 19세기까지의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당시 흥행하던 서원들의 건립 배경은 관학의 부진을 보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 士林의 세력 근거지로서 儒敎文化의 특성을 地域的으로 差別化하는 기능이 내재해 있었다는 시각을 갖고 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원이 유교 문화지역의 공간적 영역을 확대하고 領域性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지정학적이고 공간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조선시기 유교 문화에 있어 각 봉당<sup>1)</sup>의 근거지 주변부(periphery)에서는 서원 건립을 둘러

\* 이 논문은 「제12회 중원문화연구 공개강좌」(2001. 11. 29)에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일반적으로, 조선시기의 유교적 學派는 정치적 黨派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학연 계보를 같이하는 일단의 유학자들을 학문적·정치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이하에서 이들을 朋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로 한다.

싼 갈등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서로 다른 당색의 서원이 건립과 철폐를 반복하거나, 동일한 서원 내에서도 서로 다른 계보의 인물이 配享되거나, 제향 인물의 位次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거나, 당색이 아닌 특정 종족집단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문중서원이 출현하거나 하는 사례들을 말한다. 문화지리학의 시야에서 보면,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文化地域의 境界地帶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문화 요소간 충돌 내지 경합 현상으로 간주된다. 주변부의 이같은 상황에 반해, 영역의 중심부에서는 비교적 서원의 건립시기가 이른 경우가 많고, 특정 당파의 계보에서 領袖나 嫡傳에 해당하는 인물을 제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타적 당색의 서원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서원의 건립과 분포는 성리학적 계보가 지역적 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지리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더욱이 17세기 이후의 서원 분포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당파적 성향을 보였고 동시에 지역적 밀착도가 매우 컸다는 점에서 이들의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는 공간적 관점이 긴요해진다.

이 글에서는 서원의 건립 추이와 분포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충북 지방<sup>2)</sup>의 유교 문화가 갖는 文化地理的 特徵의 한 단면을 읽어내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지리적 특징의 한 단면이란 충북 지방에 있어서 유교 문화지역의 形成過程 및 空間的 差別性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때 서원은 點的 입지의 의미로 국한될 수는 없으며 面的 領域性(territoriality)을 상징하는 경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원이라는 단일 요소들의 지리적 분포와 확산과정, 그로부터 기인하는 문화지역의 형성과 지역적 차별화과정에 관한 논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단일 문화요소의 논의로부터 추출되는 소결문들의 누적은 복합문화지역으로서 충북 지방 문화권의 형성과 분화과정, 특성들을 이해하는 선결 과제가 된다. 또한, 문화지역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는 인접 지역과의 유사성은 무엇이고 차별성은 어떠한가의 시각에서 공간적 영역의 연

2) 충북 지방과 관련되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지역 개념으로서 ‘중원문화지역’ 혹은 ‘중원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중원문화권’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와 문화적 특징에 관해서는 아직 분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 개념은 행정 구역상의 ‘충북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려는 정치, 행정적 의도로부터 성급히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중원문화권’과 같은 ‘문화권’ 개념은 단일문화지역의 범위와 경계에 대한 누적적 확인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일종의 ‘복합문화지역’으로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에 대한 연구 자료 위에서 결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용어이다. 현재로서는 중원문화권을 인식의 틀로 하여 충북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엮어내려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시선, 즉 각 분야마다 다양한 단일 문화요소들의 분포, 확산과정, 그리고 그 특성의 해석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충북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읽어내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충북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용어 또한 이렇게 읽혀지는 특성에 적절하게 취사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속성과 경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고의 연구 지역은 충북 지방과 그 경계 부근의 인접 지대를 포함한다.

## 2. 象徵景觀으로서의 書院

여말선초의 성리학자 중에는 새로운 왕조에 동참을 거부하면서 전국 각처로 낙향하거나 은거했던 주요 인물들이 많았다. 이들의 낙향지 내지 은거지로는 本貫, 本家鄉, 妻家鄉인 경우가 많았고 간혹 관직 재임시의 任官地였던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중앙의 정치무대와 접촉을 단절한 채 새로운 居住地에서 성리학의 연구와 보급에 열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리학 사상을 계승하는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그 결과 스승과 그 門下生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系譜가 生産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성리학적 계보는 그 탄생 배경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강학의 장소였던 스승의 거주지를 지역적 기반(local base)으로 하였다.

소위 東人과 西人, 다시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등의 ‘정치적 봉당’이란 성리학적 계보상의 차별성에 근거한 구분으로서 ‘지역적 봉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의 차별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유교 문화지역으로서 그 지역적 기반과 영역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석될 수 있는 공간 현상이다. 성리학적 계보를 배경으로 존재하는 각 봉당들은 지방의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세력 거점을 확보한 뒤 성장해 나갔다. 조선시기 전체에 걸쳐 남인은 안동을, 북인은 진주를 중심으로 그러했고, 노론은 연산과 회덕을, 소론은 니산과 충청 서부 지방을 각각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지역적 기반과 영역성의 기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주요 大儒들의 거주지 및 강학 장소이며, 이들 공간의 영역을 상징화하는 경관(symbolic landscape)이 서원이다.

각 봉당은 대체로 자신들의 초기 스승 代로부터 이어져온 거점을 핵심부(core)으로 하여 영역(territory)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 때, 특정 봉당의 中央 정치 무대에서의 실권 장악 여부는 地方에서의 領域性(territoriality) 확보 및 확대 사업에 투영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권력의 이러한 수직적 흐름의 통로가 되었던 장소가 서원이었다. 또한 수평적 시야에서 보면, 서원은 봉당의 지역적 근거지인 핵심부에서는 물론이고 영역의 최전선(frontier) 帶에서 그 공간의 영역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였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권력의 수직적 흐름은 지역사회에서 영역성의 수평적 확대와 相生의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서원은 이러한 관계의 중심점에 위치하였으므로 그것의 시기별 건립 빈도와 공간적 분포 패턴은 전국 각지에서 영역화되어온 다양한 유교 문화지역을 해석함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주지하듯이, 서원은 제향과 교육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 서원이 건립되면 반드시 누구를 제향할 것인가가 논의되게 마련인데, 이 때의 제향 인물이 어느 계통의 성리학 적 계보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서원의 黨色이 결정되었고, 나아가서 그 곳에서 가르치는 유생 들의 학문적 性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단순히 그 서원의 당색 쟁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地方, 그 地域社會의 당색이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지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서원은 유교 문화지역의 영역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標識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서원의 분포가 이러한 공간적 의미를 함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일단 어느 지역에 특정 당색의 서원이 건립되면 그 서원은 배타적 당색의 서원이 그 지역에 건립되는 것에 강력한 방해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서원의 건립은 단순히 自己 領域의 擴大 機能뿐만 아니라 대립 朋黨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안동의 토착성씨이면서 이 곳이 거주지였던 청음 김상헌(1570-1652)은 17세 기의 대표적 儒學者이면서 효종 묘정에 배향된 인물이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권위가 지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지방에는 그를 배향하는 서원이 들어서질 못 하였다. 그것은 김상헌이 김집 등 서인계 사림의 등용을 추진하고 기호사림의 1세대인 성혼의 성리학에 연원을 두는 등 분명한 기호사림계 인물이었던 반면, 안동 지방은 기호사림과 대립관계에 있던 남인 세력의 거점이었고 남인계 서원이 널리 분포했던 데에 기인한다. 해당 인물의 본관이나 거주지 緣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의 차이를 이유로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 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서인 집권기에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일시적인 노력에 불과하였다. “안동의 鄉權은 국가에서 빼앗고자하나 또한 불가능하다. 소위 西人의 무리들은 향교에 받을 불일 수 없고, 情 또한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로 몸을 맡길 곳을 세우고자 하나 南人은 재산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sup>3)</sup>는 당시의 기록은 學緣에서 출발한 사림들의 黨派가 그 만큼 지역적으로 강하게 착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같은 朋黨의 영역이 확대, 축소, 그리고 유지되는 前面에 서원이 존재했던 것이다.

3) “(慶尙監司尹)陽來曰 … 安東鄉權自國家欲爲抑奪而亦不能矣所謂西人輩不得接足於鄉校情亦齟齬欲別立托身之所而南人不欲分財.”(『承政院日記』, 第875冊, 英祖 14年 7月 16日 丙寅.

## II. 충북 지방 서원의 朋黨의 性向과 建立 推移

이 글에서는 충북 지방에 건립되었던 서원 목록을 각종 기록과 사료들로부터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충북의 서원 수는 총 39개소로서 『열읍원우사적』과 『증보문헌비고』에서 건립연도, 제향 인물 등의 기본 자료를 얻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문화유적총람 CD-Rom」(충청편)으로부터 정확한 입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본인은 각 서원에 대해서 당파적 성향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수행되었다.

먼저 기호학과와 영남학과로 대표되는 조선시기의 사림과 淵源, 각 사림파의 領袖, 그리고 그들의 嫡傳 및 門人 등 性理學의 系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다음 각 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는 인물이 어떤 사림파의 系譜에 소속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서원의 당파적 성향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제향 인물이 1인일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그 서원의 성향을 결정하였다. 즉, 제향 인물이 2인 이상이면서 특정 당색의 인물과 무소속의 인물이 병존할 경우에는 主享 자리에 어떤 인물의 位牌가 모셔져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서로 다른 당색의 인물이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주향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관계없이 판단 보류로 남겨놓았다. 특정 성씨의 인물만을 2인 이상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당파적 성향을 표시하긴 하였지만 일단 문중서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특정 성씨의 인물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리학적 계보상 領袖나 嫡傳에 해당하는 인물을 모신 경우는 그 인물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중서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당파적 소속성을 가진 서원으로 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아 충청북도 지방에는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호 계열의 서원을 보면, 호서지방 최초의 서원인 보은 상현서원<sup>4)</sup>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에 비해 7년 늦게 건립되었다. 호서지방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 역시 충북 지방에 입지하였는데 바로 청주의 신항서원<sup>5)</sup>으로서 전술한 상현서원과 함께 기호사림과 계

4) 1549년에 건립되었고 1610년에 사액되었다. 건립 초기에 김정과 성운을 제향하였고, 추후에 이 서원의 건립자인 성제원과 기호사림파의 주요 인물인 조현, 송시열을 추가로 제향하였다. 제향된 모든 인물이 기호계 사림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1570년에 건립되었고 1660년에 사액되었다. 이이, 경연, 김정, 박훈, 송인수, 이색 등 총 8인을 모시고 있다. 기호사림파의 宗丈이라 할 수 있는 율곡 이이를 모시고 있고 후에 송시열이 講堂記를 지은 기록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기호사림파 계열의 서원임이 확실하다.

열의 서원이다. 그 후에 건립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으로는 옥천의 창주서원(1608년), 영동의 초강서원(1611년), 괴산의 구계서원(1613년), 청주의 노봉서원(1615년) 등으로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은 총 20개소였으며 전체 서원 수의 과반수에 해당했다(<표 1> 참조).

표 1. 충북 소재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과 건립 시기 및 제향 인물

구 분	건립시기	사액	특기 사항	제 향 인 물
보은 상현서원	1549	○		김정, 성운, 성제원, 조현, 송시열 이상 5인
청주 신항서원	1570	○		이이, 경연, 김정, 박훈, 송인수, 이색 등 9인
충주 팔봉서원	1582	○	문중인물	이자, 이연경 등 4인: 韓山李氏
진천 백원서원	1597	○	문중인물	이중학, 이덕승, 이여, 이부 이상 4인: 韓山李氏
옥천 창주서원	1608	○		조현, 김집, 송시열, 송시열 등 5인
영동 초강서원	1611	×		김자수, 박연, 송시열, 송시영, 윤황 등
괴산 구계서원	1613	×		이준경 등 5인
청주 노봉서원	1615	○		송인수, 정염, 송시열 이상 3인
영동 화암서원	1670	×	문중인물	장항, 장필무, 장지현 등 5인: 求禮張氏
제천 봉강서원	1671	○	문중인물	김식, 김권, 김육 이상 3인: 淸風金氏
단양 송파서원	1673	×		윤선거 獨享
청주 검암서원	1694	×		조현, 한일휴, 지여해 등 10인
괴산 화양서원	1696	○	노론	송시열 獨享
청주 검담서원	1696	○	노론	송준길 獨享
충주 누암서원	1696	○	노론	송시열 등 4인
청주 국제서원	1701	×	문중인물	이덕수, 이수연 등 4인: 韓山李氏 주축
옥천 덕봉서원	1701	×	노론	조현, 송시열 이상 2인
영동 한천서원	1717	○	노론	송시열 獨享
진천 지산서원	1722	○	소론	최석정 獨享
제천 황강서원	1726	○	노론	권상하 獨享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 지방에 있어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은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영남사림과의 남인이 집권하던 1674~1680년<sup>6)</sup> 및 1689~1693년<sup>7)</sup> 동안에는 한 개소

6) 1674년 禮訟論爭에서 승리한 南인이 집권하던 시기로서, 西인이 정권을 재장악한 庚申換局(1680) 직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7) 1689년 소위 己巳換局을 계기로 영남사림과 南인이 숙종의 원자책봉을 둘러싼 논쟁에서 西인에

도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1694년에 1개소, 1696년에 3개소, 1701년에 2개소 등 건립 빈도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기호사림파의 노론과 소론이 정계를 장악하던 1694년 직후<sup>8)</sup>의 시기와 일치하므로 중앙으로부터의 권력의 수직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기에 충청북도에 건립된 서원은 거의 기호사림파의 노론계 서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722년 진천 지방에는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소론계 서원이 세워졌는데, 제향인물은 숙종조 후반의 小論 領袖로 활동했던 최석정이다. 진천 지방은 한 때 최석정이 귀양살이를 하던 곳으로서의 인연이 있는데, 이를 緣故로 소론이 노론과의 쟁론에서 일시적으로 집권하던 1721~1724년 사이에 건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한편,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충청북도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한 것에 비해,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은 주로 충북의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 건립되었다. 충주, 제천, 단양을 비롯한 북부지방과 옥천, 영동으로 대표되는 남부지방은 모두 영남지방과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충북 지방에 건립된 최초의 영남사림과 계열 서원은 옥천의 쌍봉서원(1571년)이고 그 다음으로 남당서원(1580년)이 제천 지방에 건립되었다. 1602년에는 충주 목사로 부임해 온 鄭述라는 인물이 음성 지방에 영남사림과 계열의 운곡서원을 건립하였다. 운곡서원에는 주자를 配享하고 있고 정구 자신도 제향되고 있는데, 鄭述는 영남사림파의 주요 인물로서 퇴계 이황의 문인이기도 하다. 그 후 1621년에는 괴산의 화암서원이, 1662년에는 단양의 단암서원이 각각 건립되었다(<표 2> 참조).

표 2. 충북 소재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과 건립 시기 및 제향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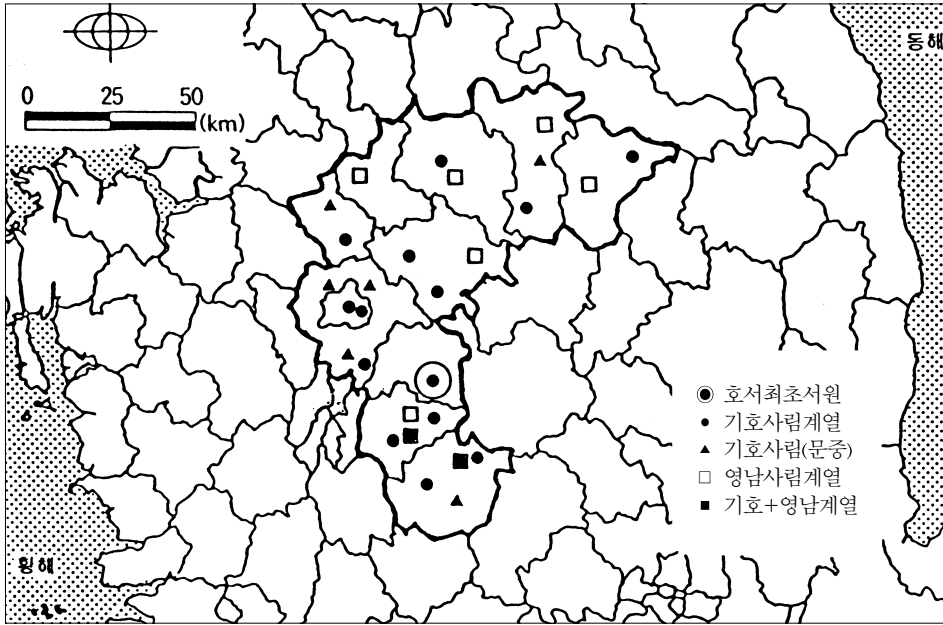
구 분	건립 시기	사액	특기 사항	제 향 인 물
옥천 쌍봉서원	1571	×		전평령, 광시, 김문기 이상 3인
제천 남당서원	1580	×		이황 등 1인
음성 운곡서원	1602	○		주자, 정구 이상 2인
괴산 화암서원	1621	×		이황 獨享
단양 단암서원	1662	×		이황, 우탁 이상 2인

대해 승리하면서 재집권한 시기이다.

8) 張禧嬪 및 그 아들의 元子 책봉을 옹호하고 閔氏를 폐출시킨 南人이 실권하고 기호사림파의 노론과 소론이 재집권한 甲戌換局(1694년)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갑술환국 이후 영남사림파의 남인은 완전히 정권에서 밀려났으며 조선말기에 이르도록 재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갑술환국 이후에는 기호사림파 내에서 노론과 소론 간의 쟁론이 나타나게 된다.

<표 2>를 보면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은 朋黨別 地域色이 뚜렷해지기전의 시기 즉 1680년대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기에 있어서 붕당간 黨爭은 17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이 성공함에 따라 영남사림파의 복인 정권은 완전히 몰락하고 기호사림파 계열이 실권을 장악한다. 그 후 현종과 숙종의 교체를 계기로 왕족의 服制 문제를 둘러싸고 1674년에는 영남사림파의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 1680년에는 다시 기호사림파가, 1689년에는 남인이, 1694년에는 다시 기호사림파가 집권당을 이루게 되었다.

지도 1. 충북 및 인근 지역 서원의 당파별 분포 패턴



이 중에서 1680년대는 유교 문화지역의 분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680년 남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기호사림파는 1683년에 이르러 老論과 少論으로 분열한 것이다. 노론과 소론이란 송시열과 윤중이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호사림파가 나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나뉜 노론과 소론은 송시열과 윤중의 거주지 및 이를 중심으로한 이 두 인물의 활동 무대에 있어서의 분열을 뜻한다. 즉, ‘당파의 분열=지역적 분열’, ‘붕당의 기반=지역(지방)’이라는 공식이 더욱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기인 것이다. 특히, 송시열의 거주지

및 주요 활동 공간은 회덕과 연산, 옥천, 영동, 문의, 청주 등 현재의 충남 남동부와 충청북도 지역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건립된 서원은 다분히 노론계의 기호사림과 성향을 보였고, 이렇게 지역적 당색이 강화된 만큼 이 지역은 이전보다 강력한 배타적 영역성을 확보하게 되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1680년대 이후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충청북도 지방에 건립되지 못한 배경으로서 노론이라는 당파가 지니는 강력하고 배타적인 영역성을 지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은 사액받은 경우가 단 1개소로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총 20개소중 13개소가 사액된 것(6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또한 제향인물도 주자, 이황 등의 경우처럼 봉당과 당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의 인물들이거나 옥천 쌍봉 서원의 沃川全氏 전팽령, 단양 단암서원의 丹陽禹氏 우탁과 같이 그 지역의 土着姓氏에 해당하는 인물을 취함으로써, 기호사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立地戰略이 읽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액서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그 만큼 충북 지방이 전체적으로 기호사림과 계열의 유림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Ⅲ. 서원의 分布 패턴과 그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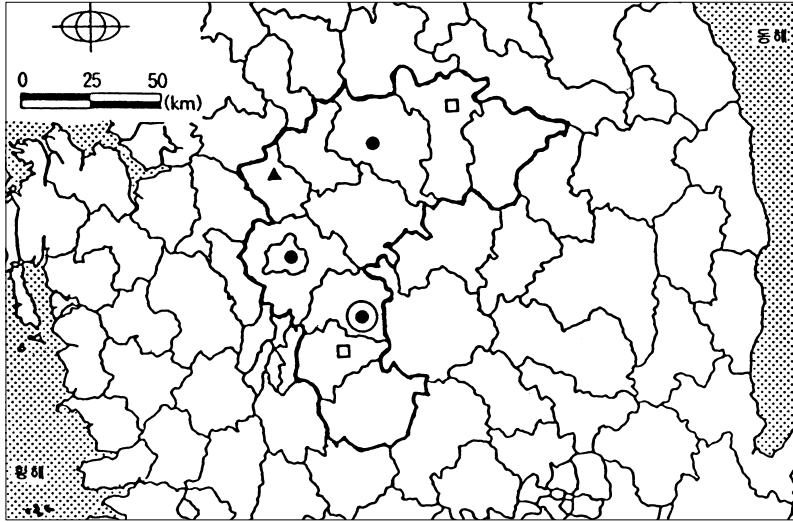
#### 1. 時期別 변화와 특징

충청도에서 서원이 최초로 건립된 장소는 충북 보은 지방이다. 1549년에 건립된 보은의 상현서원에 이어 1570년 청주에서는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신항서원이 세워졌다. 이로써 충북 지방에는 충청도에 건립된 초창기의 두 서원이 모두 입지하게 되었는데 두 곳 모두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었다. 두 서원은 각각 1610년과 1660년에 賜額됨으로써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준받은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체로 볼 때 초창기에 건립된 5개 서원 중 4개 서원이 충북 지방에 위치하였는데 이들이 세워진 곳은 전술한 보은과 청주 외에 옥천, 제천 지방이었다. 시기상으로는 1549년부터 1580년까지의 일이다.

<지도 2>는 1600년 이전에 건립된 초창기의 서원 분포를 지도화한 것인데, 당시 충북 지방에는 보은, 청주, 진천, 충주를 중심으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그리고 道の 북단과 남단에 위치한 옥천과 제천 지방에는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충북 지방의

중앙부에서는 기호사람과 계열의 서원이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의 남단과 북단의 일부 지방에 영남사람과 계열의 서원이 포진하고 있었다. 초창기의 이들 서원 분포는 당시 충북 지방의 사회, 정치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後代의 서원 분포와도 지리적 관련성이 크다.

지도 2. 1600년 이전의 당파별 서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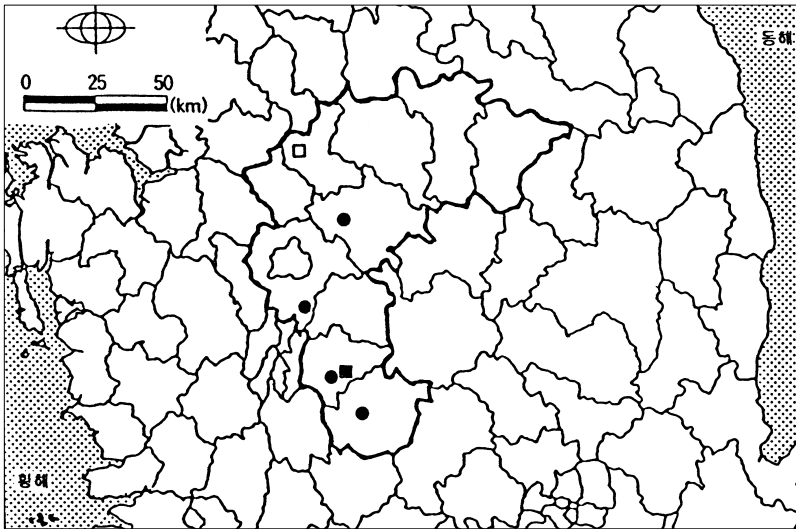


북부지방의 충주는 통일신라 이후 가야국 사람 우륵을 비롯해 영남지방으로부터 이주민이 많았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조선시기 당시 嶺南路에 위치한 주요 도시로서 남한강 수운-문경새재-낙동강 수운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으로 영남지방과 긴밀하게 기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제천과 단양 역시 영남지방과 접경하는 지대로서 죽령을 통해 영남북부지방과의 왕래가 용이한 곳이었다. 조선시기의 경우, 영남지방의 유생들은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이 곳을 경유하여 한양에 당도하는 것이 일반적 노선이었기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 지방과는 관직, 이주, 은거 등 각종 연고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충북의 북부지방은 이미 조선시기 이전부터 영남사람과 계열의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 입지할 수 있었던 사회, 정치적 배경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道의 남단에 있는 옥천과 영동은 각각 한 때 경상도의 京山府와 尙州牧의 행정관할내에 속했던 지역으로서<sup>9)</sup> 영남 지방과 정치, 행정적으로 긴밀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

지방에 세워진 최초의 서원인 옥천의 쌍봉서원과 삼계서원에 배향된 전팽령이라는 인물은 영남사림과 계열의 인물로서와 토착성씨인 沃川全氏가 영남사림과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옥천전씨는 전팽령(1480-1560)<sup>10)</sup>을 비롯하여 전식(1563-1642),<sup>11)</sup> 전극항(1590-1636),<sup>12)</sup> 전익희(1598-1659)<sup>13)</sup>, 전명룡(1606-1667)<sup>14)</sup> 등 사림과간 朋黨이 형성되던 16세기를 전후로 배출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嶺南士林의 門人이거나 친영남사림과 진영에 서 있었다. 즉, 지역적 기반이 확실한 토착성씨의 성리학적 계보가 친영남사림과 계열이었다는 점이 이 지방에 세워진 서원의 당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지도 3. 1600~1650년의 당파별 서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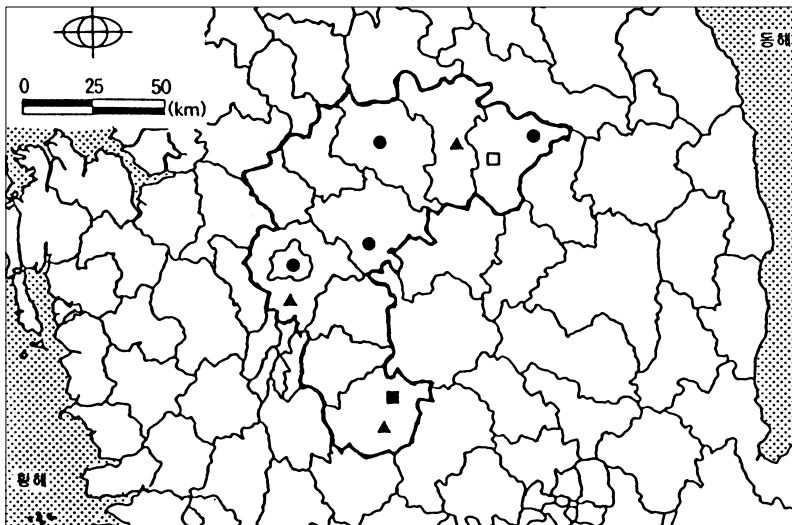


1600~1650년에 이르면, 道의 중앙부에서는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계속해서 분포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청주, 보은, 음성과 괴산의 일부 지방<sup>15)</sup>은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들만이 입지

9) 『高麗史』, 卷 第 57, 「地理」.  
 10) 경상도 尙州牧使, 부호군 역임.  
 11) 영남사림과 서애 류성룡의 門人.  
 12) 영남사림과 서애 류성룡의 門人인 정경세와 이준을 師事.  
 13) 영남사림과 정경세의 문인.  
 14) 경상도 흥덕현감, 울산부사, 영해부사, 대사헌, 대사간 역임.  
 15) 이 시기에 이르면, 서원의 당색 면에서 괴산 지방은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금강 수계에 해당하는 괴산군 청안면 석곡리에는 기호사림과 계열의 구계서원이, 남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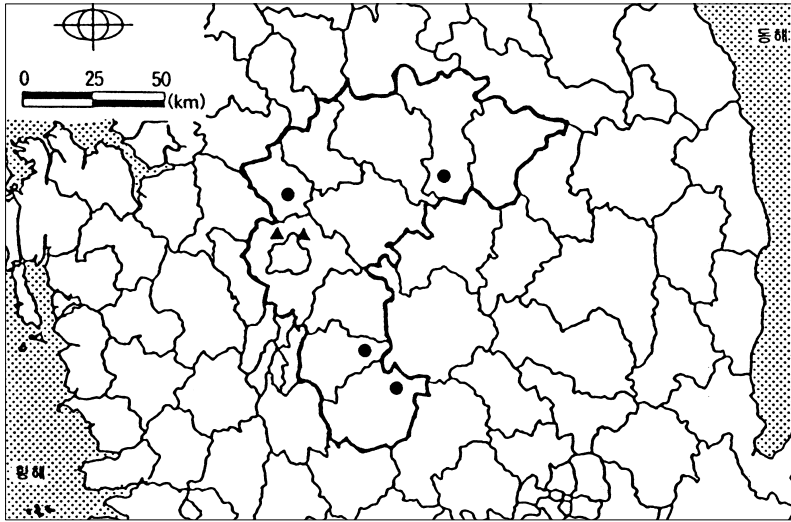
한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북단에서는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수를 늘려 음성과 괴산의 일부지방에까지 분포하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의 남단에서는 옥천의 창주서원(1608), 영동의 초강서원(1611) 등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새롭게 입지하였다. 그리고 옥천의 삼계서원(1621)에서는 기호와 영남계 인물이 동시에 제향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어떤 인물을 主후 자리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놓고 유림들 간에 잦은 분쟁이 있었다. 이 점을 보면, 당시 옥천과 영동 등 道의 남단에서는 기호사림계 서원이 득세하는 분위기에서 기존의 영남사림과 유림들과 갈등이 나타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지도 3>). 동일한 서원에 서로 다른 계열의 인물이 제향되는 이 같은 특이한 경우는 전시기에 걸쳐 총 두 개소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유림들간의 갈등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는데, 전술한 옥천의 삼계서원 외에 영동의 송계서원(1664)이 그곳으로서 양자 모두 도의 남부 지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지역적 당색이 점차 기호사림과 계열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지도 4. 1650~1700년의 당파별 서원 분포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에는 영남사림과 계열의 화암서원이 세워진다. 금강과 한강의 분수계를 경계로하여 양쪽 사면에 서로 다른 계열의 서원이 건립된 것이다.

지도 5. 1700년이후의 당파별 서원 분포



1650년~1700년의 시기에는 서원의 분포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당색이 불분명한 서원 및 문중서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호계 서원이 도의 북단인 충주, 제천, 단양에 출현했다는 사실이다(<지도 4>). 이러한 추세는 1700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며 남단의 옥천과 영동 지방에서도 모두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요컨대 1650년 이후에는 충북 지방 전체에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수 영남사림과 계열의 인물을 제향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특정 문중의 사회, 경제적 권위가 작용한 문중서원적 성격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그 지방 유림의 성리학적 성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1650년 이후에는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충청북도 전체로 그 영역성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옥천의 삼계서원과 영동의 송계서원에서는 기존의 영남계 서원이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으로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700년 이후가 되면 道 전역에서 순수한 영남계 서원<sup>16)</sup>은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하였다(<지도 5>).<sup>17)</sup>

16) 전술한 문중서원적 성향의 영남계 서원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17) 서원의 분포를 이해하려 함에 있어서는, 중앙 정계에서의 당파별 집권시기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남사림과 계열의 南人이 완전히 몰락한 甲戌換局(1694) 이후에는 충청북도에서 영남계 서원이 한 곳도 건립되지 못했음이 주목된다.

## 2. 隣接 地域圈과의 비교

### ① 西部 隣接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 보은, 음성을 중심으로 한 충북 지방의 중앙부는 일찍부터 기호사림과의 서원이 지배적이었던 영역이다. <지도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역은 서쪽을 향하여 인접한 충남 지방의 연기, 대전, 금산으로 연속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 일대는 기호사림계 서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서원의 배향 인물은 송시열, 송준길을 비롯한 기호사림과의 핵심 인물들로서 이들의 世居地이자 주요 活動舞臺였다는 연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호사림과의 노론 계열을 이끌었던 우암 송시열은 연산 지방의 스승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과 더불어 기호사림과의 지역적 근거지를 충남 연산과 회덕 일대로 확고히 다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연산과 회덕은 16-17세기의 당쟁 기간 동안 기호사림과의 嫡傳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던 중핵 지대로서 부각되었고, 이에 인접한 충북의 청주, 보은, 진천은 거시적으로 보면 연산, 회덕 지방과 연결된 하나의 流域盆地로서 중핵지대의 延長圈域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충북의 보은과 청주는 당쟁 기간 동안 비록 기호사림과의 중핵 지대는 아니었지만 호서지방 최초의 서원들이 입지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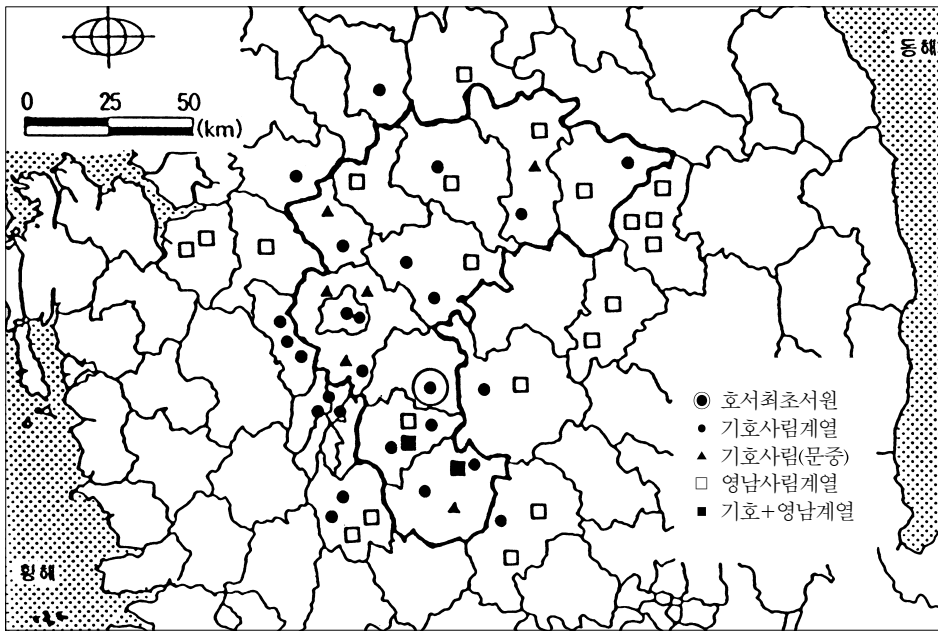
그러나 서부 인접권의 서원 당색이 기호사림계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다. 서북부에 인접한 천안의 목천면과 서남부에 인접한 금산군 부리면에는 영남계 서원이 세워진 바 있다. 아마도 전자의 경우는 천안이 사색당파의 혼재 양상을 보였던 내포 지방의 연장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후자의 경우는 초창기에 영남계 서원이 분포하던 옥천 및 영동과 접경한 지역이었다는 데에서 건립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② 南部 및 東部 隣接圈

충남의 회덕을 주요 활동 거점으로 하던 송시열은 자신의 활동 반경을 출신지인 옥천과 영동 지방에까지 확장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충북 남부지방의 당색이 기호사림계열로 변모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서원 건립 및 배향 인물의 선정에 관여한 사례도 많았다. 1600년대 이후 충북의 남단에 위치한 옥천과 영동이 북단의 지방들에 비해서 기호계 서원이 급속히 증가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충북의 남부지방은 다시 남부로는 전라도 그리고 동부로는 경상도와 인접하고 있다. 이 중 남부의 전라도 무주 일대에서는 문중서원으로 보이는 곳만이 세 개소 건립될 뿐 특별한 당색

지도 6. 충북 인접 지역의 당파별 서원 분포



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부 인접권인 경상도에서는 영남사립과 계열의 서원이 우세한 가운데 기호계 서원이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패턴을 보인다.

기호계 서원이 분포하는 지역은 김천과 상주로서 각각 추풍령과 화령재를 통해 충북 지방과 교류가 잦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과 접하고 있는 옥천 및 영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 지역에서도 서원의 당색에 있어서 기호계와 영남계가 混在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옥천 및 영동의 당색이 17세기 이후 영남계에서 기호계 성향으로 점차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기호계 서원이 여세를 몰아 이들 지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송준길을 제향하고 있는 상주의 흥암서원이 1702년에 건립되었고 송시열과 송능상을 제향한 김천의 춘천서원이 1756년에 건립된 사실에서 시기상의 연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주지방이 송준길의 처가였다는 연고도 이 지역에 기호계 서원이 확산하는 데에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주 이북의 예천과 영주 지방에서는 기호사립과 계열의 서원이 단 한 곳도 분포하지 못했다. 주지하듯이, 이들 지역은 안동지방과 함께 영남사립과의 핵심지역으로서 그만큼 지역적 당색 또한 분명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영남사립과의 중심 세력은 이들 지역에 확

고한 기반을 두면서 죽령 및 문경새재를 넘어 그 영역을 충북의 북단에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때 충북 북단의 충주, 제천, 단양 지방에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분포한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③ 北部 隣接圈

충북의 북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서원의 분포가 삼남 지방에 비해 현저히 적다.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서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 전라, 경상으로 구성되는 삼남지방의 서원 수가 전국의 7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경기도와 강원도의 서원 수는 절대적으로 적었고, 따라서 소수의 분포만으로 지역적 당색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으므로 간략한 특징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북서부에 인접한 경기 남부에는 안성과 여주에 각각 1개소씩의 서원이 분포하며 모두 기호사림과 계열의 인물을 제향하고 있다. 북부에 인접한 원주 지방에는 토착성씨인 원주원씨를 제향한 서원이 2개소, 그리고 영남계 서원이 1개소 입지하였다. 이 영남계 서원은 조선시기 영남 지방을 한양과 연결해주던 남한강 수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북 북단의 단양, 제천, 충주의 영남계 서원 건립과 유사한 배경에서 세워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월 지방에는 사육신을 제향한 서원이 1개소 분포하고 있는데, 특별한 당색을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곳이 조선조 단종의 葬地였다는 사실에서 그 입지 연고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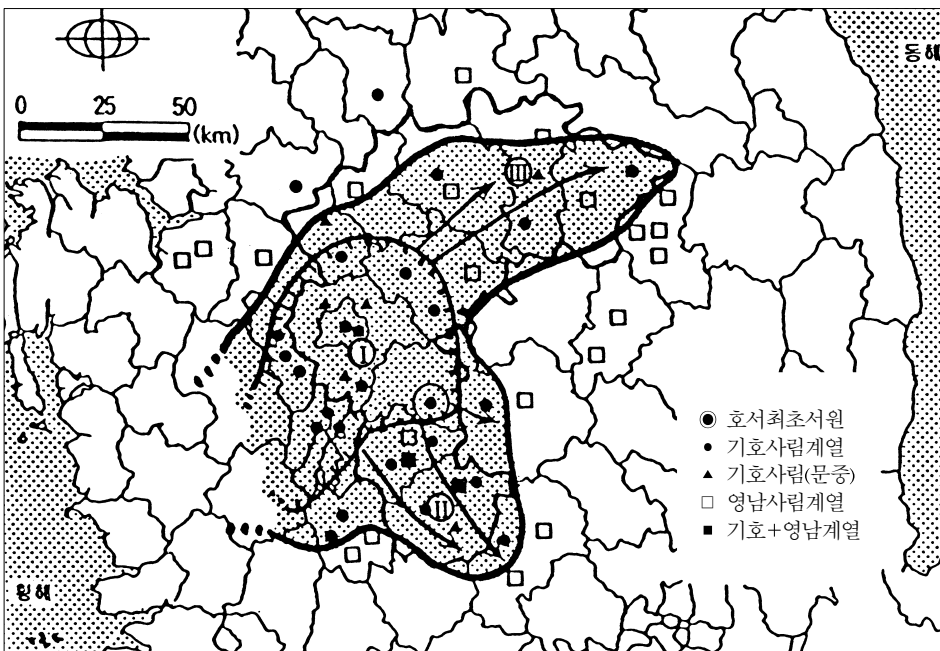
IV. 맺 음 말

충북 지방에는 보은과 청주에 초창기의 서원이 건립된 이래 중앙부에는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남단과 북단에는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입지하고 있었다. 그 후 17세기를 기점으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은 청주, 진천, 보은 등 중앙부에서 더욱 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남단의 옥천과 영동을 그 영역내에 포섭시켰고 북단의 충주, 제천, 단양으로도 분포를 확대시켜 나갔다. 17세기이후에는 문중서원과 같이 당색이 분명치 않은 서원이 다수 건립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하여 18세기 이후에는 영남계 서원의 분포는 나타나지 않은 채 충북 지방에서는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원 분포에 있어서 인접 지역권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충북 중앙부 및 남단의 기호계 서원은 충남의 회덕, 연기, 금산 지방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당장 기간동안 기

호사림파의 주요 인물들은 충남 연산과 회덕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소위 호서사림파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17세기 이래로 이 호서사림파의 영역이 충북의 중앙부와 남단, 그리고 북단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충북의 동부 인접권인 경상도 지방은 영남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소백산맥이 비교적 높은 장벽 기능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상도의 상주와 김천 등지에는 기호계 서원이 확장된 흔적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충북의 충주, 제천, 단양 지방에는 영남계 서원이 영역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충북 북단의 영남계 서원의 영역성은 남한강 수운을 따라 강원도의 원주 지방에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도 7. 충북 지방 서원 분포의 확대과정 및 유교 문화지역 구분



[<지도 7>에서 보이듯이, 충북의 유교 문화지역은 최초 서원이 건립된 보은 지방을 상징적 핵심지로 하고 청주 지방을 실질적 핵심지로 삼는 중핵지대(I)가 존재하고, 초기에는 영남사림파가 우세하다가 기호사림파계열 서원이 점차 영역성을 확보해간 남부지역권(II) 및 북부지역권(III)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핵지대(I)는 충남의 연기군 및 대전 지방으로 연속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북 지방의 서원은 당색상 특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호사림과 계열의 서원이 지배적이었고, 남단과 북단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남사림과 계열의 영향이 혼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점은 서원의 성향에 있어서 소백산맥과 분수계가 비교적 높은 장벽 기능을 한 반면, 서쪽에 인접한 지역으로는 연속성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서원 분포를 통해서 보면, 충북의 유교 문화지역은 최초 서원이 건립된 보은 지방을 상징적 핵심지로 하고 청주 지방을 실질적 핵심지로 삼는 중핵지대(Ⅰ)가 존재하고, 초기에는 영남사림파가 우세하다가 기호사림파계열 서원이 점차 영역성을 확보해간 남부지역권(Ⅱ) 및 북부지역권(Ⅲ)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핵지대(Ⅰ)는 충남의 연기군과 대전 지방으로 연속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의 유교 문화지역의 형성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스케일을 보다 넓혀 기호사림파의 宗匠들이 활동했던 충남의 연산-회덕권과의 관련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부(Ⅱ)와 북부(Ⅲ) 지역권은 분수계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생태지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는 데, 그것의 영향력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극복되는지에 대한 고찰은 지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장벽과 극복에 관련해서는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권상하, 한원진 등 기호사림파의 嫡傳에 해당했던 인물들의 거주지와 이주지, 활동무대를 추적하는 작업이 충북 지방 유교 문화지역 구분의 실증적 구명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參考文獻】

『高麗史』  
 『朝鮮王朝實錄』CD-Rom  
 『承政院日記』  
 『列邑院宇事蹟』  
 『增補文獻備考』  
 『문화유적총람』 CD-Rom(국립문화재연구소)  
 강상택, 1995, 「조선후기 창녕 지역의 서원과 역할」, 『부산사학』, 19, 부산대학교 사학회, pp.361-382.  
 강주진, 1980,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김동수, 1977, 「17~19세기 호서사림의 존재형태에 관한 일고찰」, 『인문과학』, 2-5,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문택, 1991, 「16~17세기 나주지방의 사족동향과 서원향전」, 『청계사학』,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인수, 1999, 『조선후기 산림세력연구』, 서울: 일조각.

- 이해준, 1991,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 이해준, 1994, 「17~18세기 서원의 당파적 성격 - 전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창해박병국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 전용우, 1993, 「호서사림파의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중환, 2002a,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지역화과정 - 14~19세기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중환, 2002b, 「'연산-회덕'의 종족집단과 정주 공간의 확보과정: 14-15세기 생태적 정착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 한국고문서학회 · 호서사학회 2002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5-108, .
- 전중환, 2002c,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에 관한 연구 - 보성오씨 사례분석 -」, 사회와 역사(한국사회사학회지), 제61집, pp.87-124..
-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서울: 집문당
- 정승모, 1992, 「서원 · 사우 및 향교 조직과 지역사회체계」, 『태동고전연구』, 3 · 5합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 최근묵, 1987, 「우암 송시열의 문묘 및 원 · 사 중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